

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

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
'보통의 일상'을 살아갈 수 있도록
돌봄·자립·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



1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

영·유아	·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 확대 연 1200시간 → 연 1320시간 2026년 → 2027년 정부안	· 장애아전문·통합 어린이집 확대 2008개소 → 2088개소 2026년 → 2027년
아동·청소년	· 방과후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·고도화 1만1500명 → 1만3000명 2026년 → 2027년 정부안	·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 11만명 → 11만6000명 2026년 → 2027년 정부안
청·장년	·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·고도화 1만5000명 → 2만명 2026년 → 2027년 정부안	·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 확대 통합돌봄 2340명 → 2760명 2026년 → 2027년 정부안 긴급돌봄 2개소 → 5개소 2026년 → 2027년 정부안
고령	· 65세가 되어도 활동지원서비스 계속 이용 가능 * 장애인활동법 제5조 개정 (2027년 7월 시행)	·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→ 심한 장애인 전체 2026년 → 2027년 정부안

②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



자립

- 부모 사후 등 보호자 부재 시
최중증 대상 **24시간 돌봄·주거지원**
확대

주말에는
원가정 복귀



현재

주말에도
이용 가능



앞으로

- 지역사회 **자립지원** 대상자 확대

800명·
시범사업



2026년

본사업 전환



2027년



일자리

- 장애 특성을 고려한 **재직자 훈련** 확대

400명



2026년

720명



2027년 정부안

- 중증장애인 **근로지원인** 확대

1만1700명



2026년

1만2200명



2027년 정부안



권리

- 장애인권익옹호기관
확대 대응 역량 강화

* 상담·조사 인력

중앙
6인*

지역
5인*

2026년

중앙
7인*

지역
6인*

2027년 정부안

- 발달장애인
**공공후견지원 및
재산관리지원서비스**
확대



- 수사과정에서의
발달장애인 권리보호
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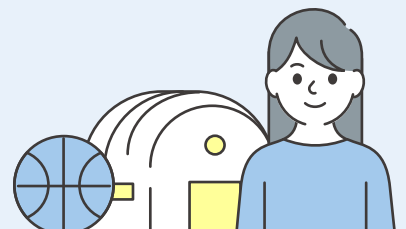


여가

- 이동권 보장을 위한 **특별교통수단**
확대 및 이용편의 개선



-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,
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등
문화·예술·체육 참여기회 확대



③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



전달
체계

· **시·도 장애아동지원센터** 설치

- 장애 조기발견부터 복지·교육·의료까지 연계 지원

조기
발견

복지

교육

의료



전문인력
처우개선

·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**가산수당** 신설

영아 200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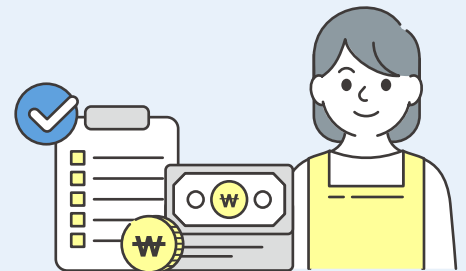
유아 1000원



2027년 정부안

· 보험*·교육 등 **근로여건** 개선

*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



부모·
가족

· **가족 휴식 지원** 확대

1만6000명

1만8000명



2026년



2027년 정부안

· 발달장애인 **위기가구** 조기 발굴 공적 지원 연계

